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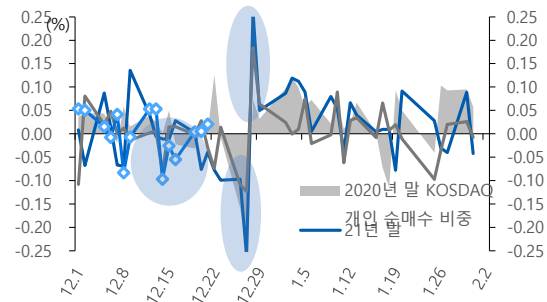


낮아진 대주주 락, 유효한 배당부

1. 양도소득세 개정

- 전일 정부는 양도세 과세 대상 보유금액을 10억원→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 작년 대주주 가족요건 제외로 개인 매도 부담은 낮아진 수준으로 평가.
- 동 발표는 기존 대중의 심리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2020년 ~ 23년 연말 개인 수급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12월 기말 배당

- 작년 증시 선진화 방안으로 상당수의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개정.
- 12월 말일 기준 배당을 시행하는 종목도 다수.
- 관련 종목의 매수는 12/26(화)까지 진행되어야 함.

연말 기준 주주배정 기준일을 발표한 종목의 4Q 기말배당 예상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0.4Q	21.4Q	22.4Q(E)	
A078930	GS	2,000	2,500	2,500	5.83
A267250	HD 현대	3,700	3,700	3,700	5.77
A300720	한일시멘트	540	580	580	4.46
A032830	삼성생명	3,000	3,000	3,000	4.20
A016360	삼성증권	3,800	1,700	1,700	4.19
A161000	에경케미칼	550	550	550	3.49
A267270	HD 현대건설기계	1,200	1,750	1,750	3.35
A042670	HD 현대인프라코어	-	240	240	2.93
A014830	유니드	1,700	2,000	2,000	2.91
A031430	신세계인테리어	300	500	500	2.7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양도소득세 개정

전일 정부는 양도세 과세 대상 보유금액을 10억원→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 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분율이 KOSPI 1%, KOSDAQ 2%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월마다 이를 회피한 개인 매도가 심화되고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유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규제의 강도에 따라 영향은 달랐다.

17년 8월 개정 당시, 양도소득세를 20%→25%로 상향조정하면서, 16년 이전과는 대비되는 연말 수급 흐름을 보였다. 특히 양도소득세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 개인 매도금액 수준도 높은데다가, 매도기간이 예년과 다르게 긴 편이었으며, 일부 대기업에서도 지주회사 등 관계사가 물량을 인수하는 편법도 동원되었다.

[표1]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개정

발표일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	
	KOSPI		KOSDAQ		시행	세율	시행
	지분율	금액	지분율	금액			
15.8.6	1%	25억	2%	20억	16.4.1		
15.12.23						1년 미만 30% 추가	16.4.1
16.7.28	1%	15억	2%	15억	18.4.1		
16.12.27	1%	10억	2%	10억	20.4.1		
17.8.2	1%	3억	2%	3억	21.4.1	25% (3억 이하 20%)	18.1.1
20.11.3	1%	10억	2%	10억	21.4월 시행분 유예		
23.12.22	1%	50억	2%	50억	24.1.1		

오랜 기간 일반 투자자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까지 합산해서 과세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작년 22년말 개정되었으며, 상대적인 매도레벨은 예년보다 낮은 것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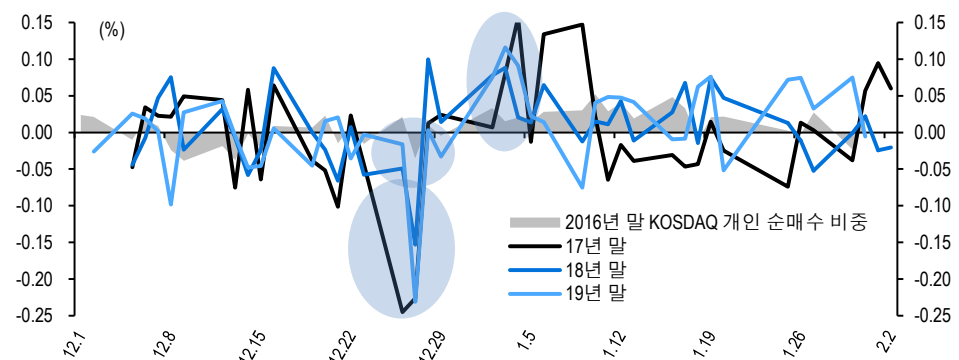
[표2] 22년말 가족 요건의 개정

구분	이전	변경
최대주주	친족 -6촌혈족 -4촌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친족 -4촌혈족 -3촌인척 -(좌동) -(좌동) - 혼외출생자 생부·모 (좌 동)
非 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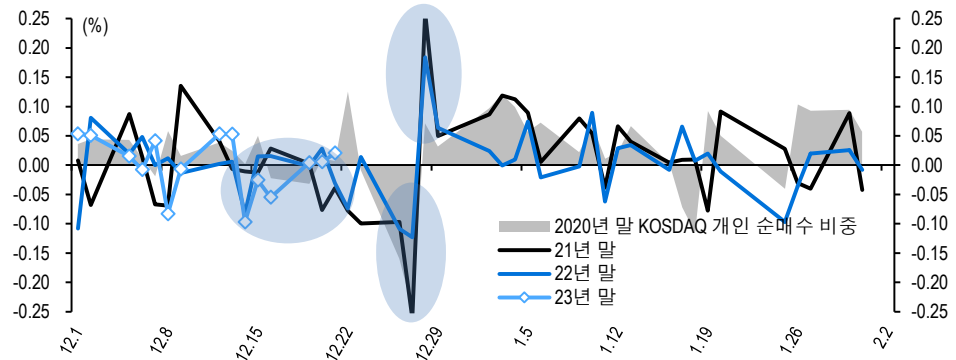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12월 전반에 개인매도가 출회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마감시한의 개념에서 실제 수급은 대체로 기한 5거래일 이내에 출회되는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매도 후 연초에 개인 수급은 동일 수준을 매수로 회복했다.

수급은 대중의 심리를 반영한다. 부자 감세 등의 비판 속에서도 동 개정은 어쨌든 시장의 억눌린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기제로 일조할 것으로 본다.

[차트1] 2016년~19년 연말 개인 KOSDAQ 수급



[차트2] 2020년 ~ 23년 연말 개인 수급



2. 12월 기말 배당

12월 결산법인의 기말 배당 전망은 작년부터 추진된 배당 선진화 방안으로 개별 기업의 자율에 따라, 다소 혼선을 빚게 되었다. 은행 등 상당 수의 종목은 정관 개정으로 주주총회 이후 배당으로 반영했고, 기존 연말 배당락은 완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존대로 12월말 기준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도 간과할 수는 없다. 분기 배당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내는 기말 배당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 법인의 배당 수취를 위해서는 12/26일(화)까지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일부 종목은 확정 현금 배당금을 공시했지만, 배당수익률은 다소 높지 않으며, 배당락도 해당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표3] 4Q 기말 현금배당 확정 발표 기업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1.4Q	22.4Q	23.4Q (P)	
A300720	한일시멘트	540	580	580	4.5
A105630	한세실업	500	500	500	2.3
A016380	KG 스틸	100	150	150	1.7
A097520	엠씨넥스	500	500	500	1.7
A272290	이녹스첨단소재	350	450	450	1.4
A001060	JW 중외제약	307	364	364	1.0
A058610	에스피지	250	200	200	0.6
A068270	셀트리온	708	361	361	0.2
A290650	엘앤씨바이오	50	50	50	0.2

12월 중순부터 기말 배당 관련, 상장사의 자율공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 관개정을 하지 않은 종목 중 이들 안내가 진행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 기말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DPS 상향조정 수준이 낮아 역시 배당락을 피할 수 없지만, 아웃퍼폼을 보였던 배당부의 효과를 보면 관련주에도 기대를 가질 만 하다.

[표4] 정관 미 개정 기업의 4Q 기말 배당 예상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1.4Q	22.4Q	23.4Q (E)	
A001120	LX 인터내셔널	2,300	3,000	3,000	9.8
A004800	효성	6,500	4,500	4,500	6.6
A004000	롯데정밀화학	2,300	3,500	3,500	5.9
A030000	제일기획	990	1,150	1,150	5.7
A033780	KT&G	4,800	5,000	5,000	5.5
A030200	KT	1,910	1,960	1,960	5.5
A001430	세아베스틸지주	1,500	1,200	1,200	4.6
A069260	TKG 휴캄스	1,000	1,000	1,000	4.3
A010950	S-Oil	2,800	3,000	3,000	4.3
A000080	하이트진로	800	950	950	4.1
A012750	에스원	2,500	2,500	2,500	4.0
A010130	고려아연	20,000	20,000	20,000	4.0
A011780	금호석유	10,000	5,400	5,400	3.9
A032640	LG 유플러스	350	400	400	3.8
A071050	한국금융지주	6,150	2,300	2,300	3.7
A003550	LG	2,800	3,000	3,000	3.5
A003490	대한항공	-	750	750	3.1

주주 배정기준일을 연말로 확정 공시한 종목은 다소 접근이 안정적이다. 역시 배당 컨센서스는 전년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해당 종목군은 현재 배당 수취를 위한 트레이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표5] 연말 기준 주주배정 기준일을 발표한 종목의 4Q 기말배당 예상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1.4Q	22.4Q	23.4Q (E)	
A078930	GS	2,000	2,500	2,500	5.83
A267250	HD 현대	3,700	3,700	3,700	5.77
A300720	한일시멘트	540	580	580	4.46
A032830	삼성생명	3,000	3,000	3,000	4.20
A016360	삼성증권	3,800	1,700	1,700	4.19
A161000	애경케미칼	550	550	550	3.49
A267270	HD 현대건설기계	1,200	1,750	1,750	3.35
A042670	HD 현대인프라코어	-	240	240	2.93
A014830	유니드	1,700	2,000	2,000	2.91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널	300	500	500	2.72
A105630	한세실업	500	500	500	2.28
A010060	OCI 홀딩스	2,000	2,500	2,500	2.24
A004170	신세계	3,000	3,750	3,750	2.12
A381970	케이카	750	190	190	1.66
A161890	한국콜마	415	500	500	0.94
A267260	HD 현대일렉트릭	-	500	500	0.59
A128940	한미약품	481	490	490	0.15
A192820	코스맥스	550	-	-	-
A035420	NAVER	511	-	-	-